

# KB증권, 발행어음 인가 초읽기... 대형사 경쟁 가속도

## KB증권

김성현·박정림 대표체제 시너지  
인프라 구축 끝내고 '승인' 대기중  
내달 초 발행어음 상품출시 기대  
금감원 첫 종합감사 타킷에 긴장



김성현 KB증권 대표이사 사장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 사장

KB증권이 발행어음 시장 진출을 목전에 두고 있다. 기업 채권 부문에서 확실한 강점을 가진 만큼 독창적인 발행어음 상품이 나올 것이라 시장의 기대가 크다. 다만 금융감독원의 종합감사를 앞두고 있어 행보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는 15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KB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안을 논의한다. 업계에서는 이번이 없는 한 KB증권이 발행어음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르면 내달 초 KB증권이 발행어음 상품을 내놓을 것이라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발행어음은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요건을 갖춘 초대형 IB로 지정된 증권사가 자체 신용으로 발행하는 만기 1년 이내의 어음이다. 초대형 IB는 자기자본의 2배까지 발행어음을 판매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중소·중견기업, 부동산 금융 등에 투자할 수 있다.

현재 증권사 5곳이 초대형 IB로 지정돼 있지만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만이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고 발행어음 사업을 하고 있다. 그만큼 진입장벽이 높고, 증권사 입장에서 새로운 시장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다. KB증권의 발행어음은 그야말로 '속

원사업'이다. 지난 2017년 7월부터 발행어음 사업을 위한 단기금융업 인가를 추진해 왔으나 대주주 요건 등 문제 해소를 위해 인가를 취소하고 보류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하지만 2017년부터 발행어음을 위한 인프라 구축은 끝마친 상태로 승인만 받길 기다리는 상태다.

올해 취임한 김성현·박정림 KB증권 각자 대표의 행보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박정림 사장은 취임 때부터 발행어음 사업에 대한 기대를 수차례 언론을 통해 전한 바 있다.

각자 대표 체제는 발행어음 사업에서

시너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 자산관리(WM) 부문을 맡은 박 사장은 발행어음 상품 개발에 주력한다. 또 투자은행(IB)에 잔뼈가 굵은 김 사장은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을 운용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KB증권이 기존 사업자와 차별화된 상품을 내놓으며 시장을 확대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B증권은 채권발행시장(DCM) 부문에서 국내 선두권 자리를 지키고 있다. 기업 자금 조달 시장에서 지위가 확고하다는 의미다.

한 증권사 IB 담당자는 "아직 발행어음 시장이 블루오션이기 때문에 KB증권이 세 번째로 인가를 받으면 누구의 먹거리를 뺏기보다는 발행어음 시장 자체가 확대될 것이라 기대가 있다"면서 "KB증권이 기업들과의 유대관계가 깊은 만큼 좋은 투자처를 확보해 새로운 상품을 출시할 것이라 기대가 있다"고 전했다.

KB증권은 발행어음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아직 금융위의 최종 승

인이 나지 않은데다 금감원의 올해 첫 종합감사 타킷이 된 상태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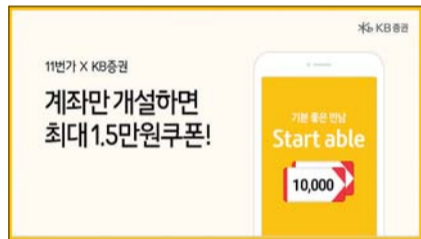
금감원은 증권사 금융시스템 안정과 내부통제 강화를 강조하며 종합감사를 벌이고 있다. 올해 KB증권은 홈트레이딩시스템(HST)의 일시적 장애 등으로 투자자들의 불만이 접수된 만큼 내부 긴장감이 높아진 상태다.

금감원의 종합감사는 말 그대로 모든 걸 다 들여다본다. 한 분야에 치중한 검사가 아닌 만큼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지 증권사는 전혀 예측할 수가 없다. 종합감사를 경험한 증권사 관계자에 따르면 "금감원이 원하는 모든 데이터를 다 제출해야 한다"면서 "잘못한 게 없어도 긴장될 수밖에 없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한편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의 발행어음 수신잔고는 8조5000억원에 달한다. 한국투자증권이 5조4000억원, NH투자증권이 3조1000억원이다. KB증권이 발행어음 시장에 진출하면 해당 시장은 10조원 규모로 커질 전망이다.

/손업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 증권 다이제스트



### KB증권 비대면 계좌개설고객 혜택

KB증권이 인터넷 쇼핑물 11번가와 함께 비대면 계좌개설 고객 대상 할인쿠폰 증정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KB증권의 비대면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보다 큰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 먼저 5월 13일 오전 10시부터 11번가 사이트에 열리는 KB증권 이벤트 페이지에서 발급되는 선착순 2만명 대상의 할인 프로모션 코드를 받고, KB증권 비대면 계좌개설 시 해당 코드를 입력하는 고객에게 11번가 1만원 할인쿠폰을 지급한다. /손업지 기자

### 한국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사 내부통제' 교육

한국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자산운용사 내부통제' 교육 과정을 오는 6월 24일부터 7월 10일까지 운영한다. 국내외 내부통제 사례를 분석하고 내부통제 규정·절차에 대한 매뉴얼 작성 등을 학습하도록 구성했다. 수강신청은 6월 3일까지 홈페이지에서 받는다.

###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관련 법규 이해' 과정

한국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다음 달 24일부터 28일까지 '펀드 관련 법규 이해' 과정을 운영한다. 현업 전문가가 펀드 관련 법규와 집합투자규약을 교육할 예정이다. 수강신청은 다음 달 3일까지 홈페이지에서 받는다.

## 초대형 IB 다음 타자는... 하나금융? 메리츠증권?

하나금융투자 자기자본 3.2조  
이르면 이달 종합금융 인가 받을 듯  
메리츠증권증권 자기자본 3.5조  
기업대출 등 핵심업무로 자본 확충



신한금융투자가 국내 6번째 초대형 IB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가운데 다음 타석에는 어느 금융투자사가 나설 지 눈길을 끈다.

초대형 IB는 자기자본이 4조원을 넘어서야 한다. 현재 하나금융투자와 메리츠증권증권이 3조원대 자기자본을 갖추고 있어 업계에서는 양사 중에 한 곳이 신한금융투를 잇는 초대형 IB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두 회사는 굳이 초대형 IB를 위해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안에 초대형 IB로 진출하기 위해 수 천 억원의 증자를 단행한 신

한과 달리 스스로 실적을 쌓아 자기자본 규모를 키워가겠다는 계획이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하나금융투자의 자기자본은 3조2159억원이다. 같은 기준으로 메리츠증권증권은 3조4731억원에 달한다. 양사는 4조의 문턱을 눈 앞에 두고 있지만 신한처럼 적극적인 행보는 자제할 전망이다.

우선 하나금융투자는 모그룹인 하나금융지주로부터 지난해 3월과 12월 두차례에 걸쳐 각각 5000억원, 7000억

원의 증자를 출자받았다. 이로 인해 지난해 2017년 1조9000억원 수준이던 자기자본을 3조2000억원까지 확대했다.

자기자본이 3조가 넘어가면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돼 기업신용공여와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PBS는 증권사가 헤지펀드 운용사에 대출, 증권 대여, 자문, 리서치 등 관련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의미한다. 하나금융투자는 빠르면 이달내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인가를 받을 예정이다.

메리츠증권증권도 증자보다 자체 이익을 통해 자기자본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2017년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된 메리츠증권증권은 기업대출,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의 현행 핵심 업무만으로도 충분히 이익을 내고 있다. 회사측은 유상증자로 규모를 급하게 키워가는 것 보다 순이익을 쌓아가는 방식을 유지할 계획이다.

양사의 IB부문 사업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

하나금융투자는 지난 1분기 투자금융 부문에서 최근 수년 중에 가장 좋은 성과를 내면서 수수료가 늘었다. 최근 하나금융투자는 올해 1분기 잠정 영업이익이 854억4900만원으로 전년 동기 658억700만원보다 29.85%가 늘었다고 공시했다. 매출과 당기순이익도 각각 77.2%, 48.93% 증가한 1조9367억9300만원과 623억4700만원을 기록했다. 실적 개선은 인수자문 수수료와 매매평가의 증가에서 기인했다.

메리츠증권증권 역시 분기 사상 최대 실적 행진을 이어가는 중이다. 올해 1분기 잠정 영업이익은 1659억1500만원으로 전년 동기 1351억4200만원보다 22.8% 증가했다. 매출은 46.4% 증가한 2조8281억8400만원을, 당기순이익은 36.7% 늘어난 1조413억4700만원을 각각 기록했다. /김유진 기자 ujin6326@

## GS건설 '과천자이' 견본주택 17일 오픈

별양동 52번지 일대 6단지 재건축

GS건설이 올해 두 번째 '자이'를 경기도 과천에서 선보인다.

GS건설은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52번지 일대의 과천공공아파트 6단지를 재건축하는 '과천자이' 견본주택을 오는 17일에 연다고 13일 밝혔다.

과천자이는 전체 2099가구 규모다. 최고 35층, 27개동으로 조성된다. 이 가운데 일반분양 물량은 783가구다. 선호도 높은 전용 59㎡, 74㎡, 84㎡ 위주로 공급되며 전용 99㎡, 112㎡, 125㎡의 대형 평형도 일부 공급된다.

청약 일정은 오는 21일 특별공급으



과천자이 조감도.

로 시작한다. 22일 1순위 당해지역 청약, 23일 1순위 기타지역 청약을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30일 예정이다.

/이규성 기자 peace@

## 지난달 외국인 주식·채권 3.1조 순투자

유럽서 1.4조, 美서 4000억 순매수

지난달 외국인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순매수로 전환했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4월 중 외국인은 상장주식 2조5750억원을 순매수했다.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각각 2조4000억원, 1800억원 가량을 사들였다. 지난 3월 순매도에서 한 달 만에 매수 우위로 돌아섰다.

지역별로는 유럽과 미국이 각각 1조4000억원, 4000억원을 순매수한 반면 중동에서는 1000억원을 순매도했다.

국가별로는 영국(7000억원), 룩셈부르크(4000억원), 미국(4000억원) 등이 순매수했다. 사우디(-1000억원), 스웨

덴(-1000억원), 홍콩(-1000억원) 등은 순매도를 기록했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보유규모는 지난 달 말 기준 575조9000억원으로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2.4%다.

미국이 245조6000억원을 보유해 외국인 전체의 42.7%를 차지했고 ▲유럽 169조1000억원(29.4%) ▲아시아 67조7000억원(11.8%) ▲중동 19조8000억원(3.4%)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외국인은 채권시장에서는 순투자세를 지속했다. 지난달 외국인은 상장채권 2조3360억원을 순매수해 만기상환 1조8100억원에도 불구하고 총 5260억원을 순투자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